

# 교회 교수방법의 변화 가능성 모색

- 예수의 교수방법과 구성주의의 연계 -

윤관식\*

##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교육의 현재 모습을 반추하여 예수의 교수방법들을 재 해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오늘날 유아교육에서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구성주의에 비추어 예수의 교수방법이 얼마나 위대한지 조명하는 것이다. 또한 구성주의적 교수방법과 예수의 교수방법을 현대교회의 교육체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수방법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모범적인 교수방법으로서 유효하다. 예수의 여러 가지 사역 중 가르치심은 예수의 복음 사역의 훌륭한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혁신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예수의 교육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만나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 사회경제적 배경, 과거 경험 등에 기초하여 가장 적절한 교수방법을 적용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의 다양한 교수방법은 세속교육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교수방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구성주의 교육관에 비추어 볼 때 2000년 전에 이미 실천에 옮기신,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 행위였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은 예수의 가르침을 보다 정교하게 연구하고 실천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주제어:** 교회교육, 교수방법, 구성주의,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면서
- II. 렌즈에 비친 교회 교수방법의 허구
  - 1. 시나리오 하나
  - 2. 시나리오 둘
- III. 구성주의의 이해
- IV. 예수의 교수방법과 구성주의의 관계
  - 1. 예수의 교수방법
    - 1) 실물 교수법
    - 2) 비유 교수법
    - 3) 대화 교수법
    - 4) 토의 교수법
    - 5) 질문 교수법
    - 6) 상황 교수법 및 문제 이해법
  - 2. 전통적 교회 교수방법과 예수의 구성주의적 교수방법
- V. 예수의 교수방법의 현대적 의미와 시사점
  - 1. 예수의 교수방법의 현대적 의미
    - 1)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다
    - 2) 학습자가 새로운 이해와 지식을 구성하도록 돕는다
    - 3)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실제적 과제를 제시한다
    - 4)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중시한다
    - 5) 교사의 역할을 제시한다
  - 2. 교회교육에 주는 시사점
- IV. 마무리

## I. 들어가면서

50년 전만 해도 영국 교회는 지금의 미국 교회들처럼 교인들로 초만원에 이루고 있었다. 그 당시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와 강단을 쳐다보고 있는 신자들의 수에 만족하고 있었다.... 지금 영국 교회는 비어 있다. 미국 교회의 경우 지금은 만원이지만 그 대신 평신도의 성경적 깊이나 영적인 깊이 등은 결여되어

있다... 반세기 후에는 영국 교회와 같이 미국 교회도 텅 비고 말 것이다. 만일 내가 미국 교회의 목사가 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증생시키고 영적인 기반을 닦아 주는 일에 모든 시간을 바칠 것이다(Butt, ).

Howard Butt의 경고는 현재 한국 교회의 자화상을 매우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는 하나, 인구의 20~25%를 넘나드는 교인에 비해 우리 사회의 부패는 점점 더 깊어가고, 교회는 세상과 차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은 교회의 수와 교인의 양에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의 본질을 수호할 수 있는 교회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통 개신교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으로 받아들인다.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다. 그러나 세 가지 직분에서 우리가 간과한 것은 교사로서의 예수가다(유명복 외,1994). 박호준(1986)은 예수의 사역은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이라고 하면서, 신약성경에는 95번이나“가르친다”라는 말씀이 인용되었으며 예수의 사역 중 교육활동은 매우 중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예수에 대한 가장 흔한 호칭은“선생”이다. 이 칭호는 45회나 나오며, 14회는 “랍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두드러진 사역 중의 하나는 가르침(teaching)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교회나 교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들은 매우 빠르게 그 모습을 변모해가고 있고, 교육 대상인 성도들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들의 가치관, 기호, 삶의 방식들을 매우 다양하게 바꾸고 있다. 교회교육이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는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관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홍정

근(1998)은 성공적인 교회교육의 조건으로 치밀함과 느슨함을 제시한다. 치밀함은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하며, 느슨함이란 유연하고 상황 순응적인 교육적 태도를 말한다. 이는 교회교육이 인간적인 의도와 교육의 형식만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교회 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 교회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내외적의 도전들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은 교회의 교육적 필요가 단순히 교회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닌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소년 교육과 청소년 교육, 세대간 교육(inter-generation education)과 생애교육(life-long education)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교회의 교육적 관심과 교육적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교회유지를 위한 소극적 행동이 아닌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적 시도를 위한 교수방법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사에서 교육의 질적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구성주의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교사의 교수방법적인 측면에서 교육현장에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주일학교 목회자 혹은 교사의 교수방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구성주의 기반의 교수방법은 기존의 주입식 교회 교수방법의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교회 교수방법의 쇄신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방법 개선을 위한 구성주의의 순기능은 주일학교 교사와 학습자(성도)간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정립이다. 즉, 구성주의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은 3차원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환경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서 살아가는 교회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안내자가 될 것이다. 구성주의 기반의 교수방법은 기존 교회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객관주의적 교수방법이 안고 있는 교수-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관계와 현상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구성함으로써 학습한다(추병완

외, 1999)”는 명제는 현재의 교회교육 구조를 반추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교회교육을 지배해 왔던 교수방법은 열악한 교회 교육환경 속에서 수행된 교사중심의 교수(teaching)였고, 주일학교 유년부에서 성인대상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주체와 객체가 엄격하게 분리된 환경 속에서 정보의 일방적인 전달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Duckworth(1993)는 교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무언가에 대하여 생각할 상황을 제시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지켜본다. 내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기 보다는 그들이 나에게 그들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를 말해 준다” Noddings(1990)는 구성주의적 교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성주의의 기본 전제를 받아들이고 나면 근거를 찾거나 절대적인 진리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구성주의 입장은 진실로 탈(脫)인식론적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새로운 교사와 교수방법을 유도하는데 강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12).”라고 말한다.

교사와 학습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인 기능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학교교육의 목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하다”라는 Perkins(1992)의 지적은 교회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듯싶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목표도 사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교회교육의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교수-학습 측면에서 본다면 수동적인 학습자,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 탈(脫) 상황적 지식의 전달과 습득, 습득된 지식의 비현실성과 적용 불가능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학교의 교실은 교사의 일방적 이야기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전통적인 교실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교사는 성경교제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교수방법은 교착“열심”만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신 수많은 독창적인 교수방법에는 참여적 교수방법, 상황적 교수방법, 협동학습과 같은 다양한 교수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

에서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교회교육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학생들의 사고는 평가 절하되고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고정된 세계가 존재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예수가 성경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신 위대한 교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목회자나 교사 스스로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교육의 열악한 현실에서 Barzun(1992)의 말은 공감이 간다.“가르쳐본 사람은 가르침이라는 기술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는 학생들의 마음을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보는 교사의 비전에 달려있다(20).

교회교육의 전통적인 틀에 비추어 볼 때 구성주의적 인식론이 안고 있는 철학적 관점이 약간은 어긋날 수 있다. 그러나 교수-학습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구성주의가 제공하는 학습자에 대한, 교사에 대한, 교육행정가에 대한, 특히 교회 교수방법에 주는 시사점은 현재의 교수방법을 반성하고, 새로운 교수방법의 틀이 예수가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신 교수방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를 현대 교수-학습이론에 비추어 반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할 것이다. 예수는 교육학이나 교수방법을 논한 적이 없지만 수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쳤고 그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를 구성주의 측면에서 연구해 본다는 것-예수의 교수방법들을 현대적 의미에서 고찰해본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교육의 현재 모습을 반추하여 예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교수방법들을 재해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오늘날 유아교육에서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구성주의에 비추어 예수의 교수방법이 얼마나 위대한지 조명하려 한다. 또한 구성주의적 교수방법과 예수의 교수방법을 현대교회의 교육체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

## II. 렌즈에 비친 교회 교수방법의 허구

### 1. 시나리오 하나

#### A교회의 중고등부 수업활동 상황

주일 오전 10시, 20명 남짓의 주일학교 교사와 고등부 담임 교역자가 모여 기도시간을 갖고 교육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예배에 참석한다. 40분 정도의 예배가 끝난 후 3명~10명 단위로 학생들은 교사의 인솔 하에 성경 공부에 참석한다. 3평 남짓의 조그만 교실과 각종 소음으로 가득 찬 예배실, 교회의 계단 혹은 교회 마당의 벤치에 군데군데 모여 교사들은 열심을 다해 성경 이야기를 전달하고 학생들은 표정의 변화 없이 조용히 듣고 있다. 교사는 교사용 성경공과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교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공과 공부 중 가끔 교사의 질문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돌아오지 않고, 20~30여분의 성경공부가 끝난 후 학생들은 종종 걸음으로 자신의 갈 길로 흩어진다.

### 2. 시나리오 둘

#### A교회의 성인 중급반 성경교리 수업활동 상황

예배가 끝난 40~50세 연령층의 교인 15명이 성경 공부를 위해 책상다리를 하고 연세가 지긋한 장로님의 강의를 듣고 있다. 40분의 교육시간 동안 교육 장로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질문을 하지 않고 교재를 보면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칠판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교수매체도 사용하지 않고 교재만을 이용하여 내내 앉아서 가르치고 있다. 강의 도중 참석자들은

어느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한번도 유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따금 가벼운 웃음소리는 들리지만, 그들의 표정은 내내 심각하였다. 그들은 장로님의 얼굴을 한번씩 쳐다보지만 그들의 시선은 자신들의 교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들의 표정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표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예를 든 두 시나리오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일학교 모습은 한국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분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며, 생활속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적 역량을 학습하고, 생활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탁영철 역, 1994)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현재의 주일학교 교수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주일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 특히 교수-학습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어른 중심의 부흥운동과 예배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왔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한다(김종민, 1993).

이러한 현재의 교수-학습에 대한 수많은 비판(정필훈, 1998; 이정재, 2001; 황경모, 2002; 문창화, 1998)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행정의 대부분은 중앙집권화 되어 있고, 상하 위계적 구조로 되어 있어 담임목사와 교육담당목사나 교육전도사, 목회자와 교사, 교사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들 서로간의 의사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교회 내 교육체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교육의 목적에 대한 방향과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교육 지도자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부목사나 교육전도사가 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직책 혹은 직위는 장기간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어려우며, 교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신학생들이 교육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 철학과 전문적인 교육학적 지식을 갖



춘 전문적인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교사의 훈련과 자질이다. 교사 수급의 어려움, 교사의 연령미달, 교사의 전문성 결여, 전문적인 교육훈련의 기회 부족 등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넷째, 학습 대상자인 교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부족이다. 교회는 어떤 사회 집단보다 다양한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학력, 사회적 경험 등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그들의 적합한 교육적 요구를 확인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등의 체계적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방법의 미숙함이다. 현대 교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교회 교육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다양한 연령별, 직업별,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습대상자에게 동일한 교재와 적절한 교수전달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신앙의 범주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교수-학습에 그대로 반영되어 학습자들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교사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열정만 있을 뿐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사의 교수방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박호준(1986)은 발달단계에 따른 연령별 교재의 부족과, 동일한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영적 수준 차에 따른 교재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최윤식(2000)은 주일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목회자나 교사들의 문제점으로 과거와는 아주 다른 삶의 방식과 사고를 추구하는 오늘날 N세대들에게 '예수'를 모델로 제시하지만,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배워왔던 관습, 행동기준, 신앙습성, 사교체계까지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교사들의 교수법이 과거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현장중심, 상황중심, 학습자중심, 비유 사용법, 대화법, 사물 이용법 등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매력없는 교수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만 하고, 장년층과 노년층이 왜 그토록 자신의 삶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에 안고 살아가는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다고 여길 수 있는 교육적 장치와 환경을 마련해야만 한다.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미래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영적 혼란의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처방 중의 하나는 보다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있어야 하며, 교육 담당 목회자와 교사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교육적 제도 및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목회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교회의 시대적 요구이고 사명일 것이다.

### III. 구성주의의 이해

#### 1. 구성주의

우리의 교육환경을 지배해 왔던 교육현실이 교사 중심의 객관주의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환경이었다면, 정보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적 교육환경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일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정보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은 “패러다임의 전환”(윤평중, 1990; Kuhn, 1970)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미 다가온 정보화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요구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앞에서 제기한 “학교교육의 목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하다”라는 말은 오늘의 교육현실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은 다양하게 유추할 수 있지만 수동적인 학습자,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 탈상황적 지식의 습득, 습득된 지식의 비현실성 등이 교수-학습의 주된 흐름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수방법이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매우 유효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정보화 시대를 거치는 동안 이러한 기존의 교육환경의 제한점이 드러나면서 바람직한 교육환경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이 된다.

구성주의는 인식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앎의 이론(theory of knowing)”(Duffy & Jonassen, 1992). 또는 “어떻게 의미를 만들고(how to make meaning)”, “어떻게 알아 가는가(how to come to know)”로 설명된다(Duffy & Jonassen, 1992; Fosnot, 1989). 구성주의자들은 지식은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이 구성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경험이 다른 두 사람은 똑같은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는 적극적으로 지식을 취하고 사전 지식에 비추어 동화시키며, 자기 자신의 해석에 의하여 지식을 구성한다. 인식에 대한 다양한 견해차 때문에 구성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다(Jonassen, 1991a). Piaget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구성주의자들은 개인적 사고와 의미 창조를 강조하고(Forman & Pufall, 1988), Vygotsky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구성주의자들은 사회적 맥락에서 지식 형성을 강조한다. 지식의 생성이 개인적으로 일어나느냐 혹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느냐를 떠나서 구성주의자들의 전반적인 견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황운한, 1998).

지식은 기존 경험으로부터 개인의 마음속에서 구성된다.  
 지식 구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식은 역동적이며, 개인적, 사회적, 합리적으로 창출된다.

상기를 요약하면 구성주의에서는 어떤 사물을 보는 입장도 여러 가지가 있

을 수 있으며, 어떤 사건이나 개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많은 의미와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허용한다. 이러한 인식은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경험이 의미(meaning) 부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Brown, Collins, & Duguid, 1989). 따라서, 구성주의자들은 학습자 개개인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이해 체계를 형성한다고 믿는다. 자율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은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며, 교육을 통해 향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육에서처럼 모든 아동들이 똑같이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교육해도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원천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학습은 학습자 개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그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구성주의의 본질은 교수법(pedagogy)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강인애, 1999; Wheatly, 1991, Russel, 1993). 이러한 경향은 구성주의를 '소그룹 학습활동', '학습자주도적 학습', '문제중심적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의 역할은 학습안내자, 촉진자, 중개자, 동료 학습자라고 한다. 그러나 Tobin & Tippins(1993)은 구성주의를 교수-학습 방식으로 축소해 접근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구성주의는 교수방법이 아니라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시각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비판적 성찰도구'라고도 한다. 그러나 실천적 대안을 제공하는 구성주의는 인식론에 입각한 교수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강인애 외, 1999). 구성주의 교수원리는 첫째, 학습자 중심적이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들의 적극적 토론, 성찰, 활발한 지식구성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실분위기, 학습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혼란스러워하고 어리둥절해 하는 학습자들을 보고도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인내와 지속성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는 가능한 한 학습자들의 기존 인지구조, 혹은 선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혼란이나 모순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나 답변을 해야 한다. 마지막은 교사는 성찰하고, 생각을 나누고, 계속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가져

야 한다.

구성주의에 대한 관점은 구성주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객관주의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또한 객관주의적 교수-학습이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환경을 지배해온 교육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두 관점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구성주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인식론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리한 강인애(1999)와 양용철(2000)의 연구를 수정한 내용을 <표 1>에 제시한다.

<표 1>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비교

	객관주의	구성주의
지식의 관점	객관주의	주관주의
교육패러다임	교수(teaching)	학습(learning)
학습의 정의	지식의 전수를 통한 행동의 변화	개인적 의미의 변화
학습의 원리	암기, 연습, 강화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의미 구성
학습자 관점	수동성	자주성
학습결과	일반화(모든 사람이 같은 이해에 도달한다.)	문제해결, 창의적 사고
수업전략	연습, 훈련	실질적과제, 상황적 맥락
수업매체	CAI(Computer-Assisted Instruction)	WBI(Web-Based Instruction)
기억의 역할	규칙적인 복습	맥락적 구성과 감정적 기억

전이의 형태	일반화	맥락화
수업설계의 시사점	구체적 목표의 진술 학습내용의 명세화 수업내용의 계열화 목표지향검사 활용 강화를 통한 보상체제	학습상황의 분석 학습과제의 맥락화 사회적 협상활용 협력적 학습활동 다양한 문제상황 제시 학습과정(process) 중심의 평가
교수자의 역할	지식의 전달자	학습 촉진자 학습 안내자
교수방법	강의법	질문법, 문제해결법, 토의법, 협동 학습법 등

#### IV. 예수의 교수방법과 구성주의의 관계

“기독교 교세 성장의 둔화”라는 말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만재(1997)는 198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초신자 신규 영입율의 감소와 신세대 청년층의 잇단 교회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국민일보 부설 교회성장연구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교세 성장률이 60년대 41.2%, 70년대 12.5%, 80년대 4.4%,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3% 미만 내지 -1%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회가 다원화, 정보화, 도시화, 세계화로 치달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결과임에 틀림없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전반적인 교회의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시적 접근을 취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교육 혹은 더 좁은 의미의 교수 방법적 접근에서 설명할 것이다. 현대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히 청년층의 교회 이탈 현상과 청소년들의 교회 기피현상은 교회의 신앙교육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회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성경공부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과 생활에 대한 의의와 중요성을 깨우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있다. 교회학교의 교수방법 개선은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긴급한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수방법을 과소 평가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환경과 매우 유사한 유대교의 형식주의가 한창 득세하는 시대에 세상에 오셨고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그의 뛰어난 메시지 전달력과 가르치심은 종교적 전통주의의 껍질을 깨뜨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신앙에 불을 붙이셨다. 예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결과에 대한 해답의 일부는 그의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교수방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가 오셨던 시대와 예수의 사명을 감당해야할 현재의 시대가 다른 것인가? 만약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교사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의 교수방법을 연구하여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치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구성주의가 교수방법 측면에서 학습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교수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교수내용과 그의 가르치심은 이미 2000년 전에 구성주의적 방법론을 그의 가르침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사례를 봄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

## 1. 예수의 교수방법

호른(Horne, 1980)은 여섯 가지의 교육환경(교사, 학습자, 주위환경, 교육과정 혹은 가르칠 자료, 교육목표 또는 교사가 교육을 수단으로 하여 학생들의 생활속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 교수방법)을 제시하면서 예수는 서로 다른 교수환경(teaching situation)속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교수방법을 사용하신 많은 사례를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예수와 니고데모의 사례(요 3:2)를 들어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로서의 예수와 학생으로서의

니고데모는 예수의 교수방법이 구성주의 관점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사로서의 예수는 소심하고 겁 많은 학습자인 니고데모를 남의 눈에 띄지 않은 한 밤 중을 택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의 주제는 “위로부터 태어남(the birth from above)”이었고, 교육목표는 니고데모의 인생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목표는 니고데모의 인생에서 실현되었다(요 7:50, 19:39). 예수는 그에게 자신의 말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말한 말씀을 외우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었다. 그의 교수방법은 질문과 응답이 사용된 대화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요 3:8)를 사용하였으며, 그에게 구체적인 해답을 주지 않으시지만 니고데모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내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안내하고 있다. 교사로서의 예수는 니고데모의 학습을 안내하는 사려깊은 안내자였으며, 그의 이해를 돕는 촉진자이셨다. 또한 예수의 교수방법은 학습자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의미를 구성하도록 돕는 것과, 상황적 맥락을 이용하려는 구성주의 교수방법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교수활동은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내면화, 재형성, 변형하도록 돕는 것이고, 정보의 변형은 새로운 인지구조의 출현에서 기인하는 새로운 이해와 창조를 통해서 일어난다(Gardner, 1991)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행한 교수방법은 구성주의적 이론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의 교수방법은 과거의 진부한 교수방법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연구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교수방법의 길을 새롭게 제시하는 최선의 대안책이다. 예수의 공생애 3년 동안 우매한 제자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죄에서 깨우쳐 뉘우치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신 것은 사람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었기에 가능한 초자연적 권능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의 이러한 성공적인 사역은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효과적이고 교수방법적 접근을 사용한 당연한 결과 일 것이다. 공생애 기간 중 예수께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의 개인차는 너무나 다양하여 단순한 교수방법으



로는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그들을 깨우치고, 회개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계도하는 예수의 교육적 능력은 현대의 교육철학이나 교수방법에서 보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신 다양한 교수방법은 교회교육을 담당하는 목회자나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있어 새로운 것은 아니나 단순한 교육적 이해의 수준이 아닌 실천적 노력의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은 교회의 지속적인 내적 부흥을 바라시는 예수의 우리에게 대한 기대일 것이다. 예수의 교수방법을 호운(Horne, 1980), 김용섭(1994), 은준관·임영택(1993), 노운·백교수(1994)가 쓴 책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1) 실물 교수법

예수가 개인이나 청중에게 전달한 말씀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 즉, '진리,' '성령,' '영적인 영역,' '참된 헌금,' '자비,' '부,' '위선' 등 과 같은 우매한 제자나 백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 이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추상적인 영역이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진리들을 그들의 지적 수준까지 낮추어 전달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의 실물교육 방법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예수의 실물교육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관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새, 꽃, 풀을 사용하셨고(마 6:25-31), 겸손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린이를 이용하셨고(마 18:1-6), 정부의 임무를 가르치기 위하여 동전을 보여 주셨고(마 18:1-6), 아버지와 자신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포도나무와 가지(요 15:1-8)를 사용하셨다. 그 밖에도 수많은 실물 사례를 사용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의 목회자나 교사들은 성경의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개인차가 다양한 교인과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호운(Horne, 1980)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에 덧붙여 설명하지 않고는 결코 그 추상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라"고 지적하였다.

## 2) 비유 교수법

교사로서의 예수가 즐겨 사용하셨던 교수방법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현대 학생들의 교수-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가르침이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다는 말은 교사가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수업과정에서 끊임없이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교수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수는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심에 있어 일방적으로 무엇을 지시하거나 주입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이해수준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들을 비유로 들어 쉽게 설명하셨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눅 10:29-33), 알곡과 가라지(마 13:24-30), 돌아온 탕자(눅 15:13), 달란트의 비유(마 2:25), 씨 뿌리는 자의 비유(눅 8:4-8) 등 수많은 비유를 찾아볼 수 있다. 예수께서 비유로 사물을 16번, 식물을 7번, 동물을 4번, 사람들을 34번이나 인용하셨다(박영호, 1992).

## 3) 대화 교수법

예수의 교육사역에서 동원된 다양한 방법 중 대화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는 계층과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셨고 대화를 통하여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가 대화를 통하여 교훈을 전할 때, 그 방법은 일방적인 주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주의 깊게 파악하여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가져오게 하셨다. 또한 대화 장소와 대상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사하신 예수의 언어표현은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손색이 없다. 김용섭(1994)은 예수께서 사용하신 대화법의 종류를 다음의 7가지로 제시한다. 7가지 대화 유형은 익살표현, 강조, 대조, 과장, 확대표현, 역설, 풍자이다.

## 4) 토의 교수법

토의법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을 조정 수렴하여 어

떤 일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교수방법이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요 4:1-7)는 좋은 사례이다. 예수는 여인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하고, 여인을 의견을 경청하고, 여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들려주고, 그가 제시한 의견을 스스로 생각하며 깨우치게 하였으며, 결국 예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는 니고데모의 예(요 3:1)와 젊은 부자관원(막 10:17-22)과의 대화에서도 볼 수 있다.

### 5) 질문 교수법

질문의 형식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예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방법이다. 예수도 많은 질문을 던지셨지만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하도록 권장하셨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 질문의 몇 가지 사례를 성경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저희에게“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영생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막 3:1-4), 성전에서 예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질문에“요한의 세례가 하늘 로서냐 사람에게 로서냐 내게 대답하라”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요구하셨다.

### 6) 상황 교수법 및 문제 이용법

상황교수법은 현실적 맥락과 현재의 교육내용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육이 생명이 있으려면 실제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 이어야 하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밟을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과 안식일 사이에 있는 참된 관계를 가르치신 일, 바리새인들이 시몬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를 비난하였을 때, 빚진 자들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다. 학습자가

처해있는 상황과 문제를 이용한 교수방법은 기존 교육환경이 지닌 문제점 즉, 수동적 학습자, 탈상황적 지식, 학교지식의 사회적 비적용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출발하였으며, 정보화 시대에서 나타나는 지식의 급증과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수는 서기관들에게는“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들 스스로 문제를 생각하게 하셨다. 제자들에게는“누가 가장 큰 자인가?”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가이사에 대한 세금문제를 제기할 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안 혹은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전개,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셨다.

## 2. 전통적 교회 교수방법과 예수의 구성주의적 교수방법

예수가 2000년 전에 이룩하셨던 사역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고 효율적인 교수절차와 교수방법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또한 예수의 교육목표와 교육적 실천은 현대 교수이론에 비추어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육신을 입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으로 설명한다면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아 죄인됨을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수의 목적은 현대 교회가 수행해왔고 수행해야 하는 사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걸음은 예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올바른 교인을 키우기 위한 교회의 교육체제를 전환적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것이다. <표 2>는 전통적 교회가 수행해온 교수방법과 예수의 구성주의적 교수방법을 비교해 봄으로서 교회 교육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lt;표 2&gt; 전통적 교회 교수방법과 예수의 구성주의적 교수방법 비교

	전통적 교수방법	예수의 교수방법
성경 지식의 생성 및 학습	성경에 존재하는 지식 및 정보의 발견 및 전달, 암기를 통해 저장	성경에 존재하는 지식의 이해와 개인의 마음속에서 구성됨
교육 패러다임	교수(teaching)	교수와 실천적 학습(learning)
학습의 정의	성경 지식의 습득을 통한 행동의 변화 및 실천	성경 말씀에 대한 개인적 의미의 변화 및 실천
학습의 원리	암기, 연습, 강화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의미 구성
학습자 관점	수동성	자주성, 적극성, 참여성
교사의 역할	말씀의 수호자 및 전달자	학습 촉진자 및 학습 안내자
교수전략	연습과 훈련의 제공	실질적 과제와 상황적 맥락의 제공
전이의 형태	일반화	맥락화
공과설계	구체적 목표의 진술 학습내용의 명세화 수업내용의 계열화 목표지향검사 활용 강화를 통한 보상체제	학습상황의 분석 학습과제의 맥락화 사회적 협상활용 협력적 학습활동 다양한 문제상황 제시 학습과정(process)중심의 평가
교수방법	강의법	실물 교수법, 비유 교수법, 대화 교수법, 토의 교수법, 질문 교수법, 상황 교수법 및 문제 이용법

학습결과	일반화(모든 사람이 같은 이해에 도달한다)	문제해결, 창의적 사고의 강조
------	-------------------------	------------------

## V. 예수의 교수방법의 현대적 의미와 시사점

교회의 양적 팽창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양적 팽창주의는 성경 교리의 혼란과 목회자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고, 교회의 난립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김용섭, 1994). 양적 팽창주의의 결과는 강단 설교에서 교인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었고, 교회교육의 무관심은 결국 교회의 세속화에 불을 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여준 한국 교회의 부흥은 외국교회들의 사례를 볼 때 가까운 미래에 유사한 전철을 밟을 것이 분명하다. 교계와 교회 지도자들은 외국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건강한 교회와 교인들의 바른 영적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교회교육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예수가 사용하셨던 다양한 교수방법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성인 교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유소년들의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끌고, 성경 말씀에 대한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예수가 우매한 유대인과 지적 수준이 다양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셨던 교수방법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문자적 의미의 이해수준이 아니라, 교수방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실천적인 교수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세속교육에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연구 실천하고 있는 구성주의 측면에서 예수의 교수방법을 비추어볼 때, 예수는 2000년 전에 이미 구성주의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였다. 예수는 지적 개인차가 큰 자신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교수

방법을 사용하셨고, 자신의 백성들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그 의미를 찾아 바람직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성인 교인들에 대한 성경 공부와 유년부에서 고등부에 이르는 주일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강의법은 여러모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매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교육목회자나 교사들의 열심과 신앙의 열정만으로 교회교육을 이끌어 가는 체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매우 세심하게 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며, 특히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의 가르침 즉, 교수방법적 측면에서 예수의 교수방법이 현대 교회방법에 주는 시사점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 1. 예수의 교수방법의 현대적 의미

### 1)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다.

예수는 개인 혹은 집단을 대할 때는 자신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신중히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맞는 교수법을 사용하셨다. 예수가 가르치신 만큼 다양한 학습자(백성)들을 가르쳐본 교사가 있을까? 예수의 주변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의 가르침을 받았었다. 이들을 위한 예수의 가르침은 현대교육에서 소개하는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법이였다.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어부의 예를 들어 그의 사역을 안내하셨으며, 세리에게는 세리에게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가르치셨다. 또한 부자 관원에게는 그가 처한 상황과 그의 재물을 사용하여 가르침을 주었다. 현대 교회의 구성원은 연령, 지적 수준, 사회경제적 배경, 사전 경험, 신앙 혹은 성경에 대한 이해수준 등에서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교인들의 다양한 개인적 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수체제를 설계하고 적합한 교수방법을 마련하는 일은 현대교회의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예수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법은 이러한 점에서

충분히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 2) 학습자가 새로운 이해와 지식을 구성하도록 돕는다.

구성주의에서 학습이란 “학습자들의 기존 인지구조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나 성찰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강인애 외, 1999)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는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객관적인 지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Piaget가 말한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말과 맥락을 같이한다. Duckwood(1993)는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할 상황을 제시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지켜 본다. 내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나에게 그들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말해준다.” 이 말은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의 구성을 중시하고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가 자신의 말을 일방적으로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현대 교수법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교사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안내하는 사람인가? 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 현대인, 특히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정보를 탐색하고 그 정보를 스스로 구성하기를 즐긴다는 점이다. 교회교육의 일방적 주입식 교수방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있다.

## 3)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실제적 과제를 제시한다.

구성주의에서는 “상황”(context)과 “실제적 과제”(authentic task)를 강조한다. 일반화와 보편성을 추구하는 객관주의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직면하는 문제들과는 너무 다른 인위적이고 교과서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가 “이해했다” 혹은 “학습했다”라는 말은 항상 구체



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Duffy and Jonassen, 1991). 예수의 모든 가르침은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 시작하고 끝을 맺었다. 예를 들면 “물을 기르러 온 이방인 여자의 예”에서 예수는 여인의 처한 현재 상황을 이용하여 여인의 깨우침을 이끌어 내셨다. 이와 같은 사례는 복음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4)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중시한다

구성주의의 실천적 접근 중 한 가지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이다. 학습자 중심의 문제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구성주의 접근방식을 이용한 교수법인 ‘소집단활동수업’, 협동학습을 통한 문제해결수업과 ‘프로젝트중심수업’등은 기존 교육환경의 부실성과 교수과정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적 교수방법이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의 구체적인 접근은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PBL)”으로 구현되었다. PBL의 목표는 “학습자로 하여금 어떤 문제나 과제에 대한 해결안 혹은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전개(develop)하여, 제시(present)하고, 설명(explain)하며, 나아가 옹호(defense)할 수 있어야한다”(Duffy,1996)라고 말한다. 예수는 제자 혹은 백성들을 가르칠 때 이러한 문제중심의 교수방법을 사용하셨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25-37절에서 예수의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행하시는 교육을 통하여 진리를 스스로 탐구하게 하시는 교수방법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율법사는 자신의 문제를 제기할 때(예수를 시험한 것이지만), 예수는 직접적으로 해답을 주시지 않고 율법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한다. 결국 이 사례는 율법사(학생)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예수(교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 5) 교사의 역할을 제시한다.

교사로서 예수의 역할은 현대 교육에서 제시하는 모범 사례들을 실천한 선각자이셨으며, 2000년 전에 이러한 교수(teaching)의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예수의 교사로서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 뿐 만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는 안내자이었으며 진리를 탐구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촉진자이셨다. 이는 현대 교육에서 교사의 지시를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교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교사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나 학습의 관리자가 아니라 학생들과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Brooks(1993)는 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교사는 학생의 자율성과 주도권을 격려하고 수용한다. 둘째, 교사는 상호작용적, 물리적, 조작적 자료들과 함께 생생한 원 자료와 일차 자료를 사용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 넷째, 교사는 개념들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학생들과 공유하기 전에 그러한 개념들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먼저 알아본다. 다섯째, 교사는 학생들이 교사와의 대화와 학생 상호간의 대화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여섯째, 교사는 학생들을 먼저 자신들의 초기 가설에 대한 모순을 유발하는 경험에 연루시키고 그 후에 토론을 장려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질문을 제기한 후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로서 예수의 역할은 교사가 지향해야 하는 모범적인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앞서가는 것이었다. 교회는 교회 교사에게 예수의 모범적인 교수방법을 가르치고 이를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 2. 교회교육에 주는 시사점

이만재(1997)는“교회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을 통해 특히 젊은 신세대들이 왜 교회를 멀리하는 지에 대하여 말한다. 몇 년 전 중앙지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한 질문 중 1위는 학교에서 교사의 가르침이

재미없다는 것이었다. 아마 교회의 주일학교 혹은 성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분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함으로써 모든 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청년층의 마음을 교회로 회귀시키는 것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그 첫 걸음은 교육일 것이다. 교회의 교육은 “교육” 행위 이전에 “영적운동”(은준관 외, 1993)이라는 말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앞에서 소개한 예수의 교수방법은 이론적인 문장의 나열이 아니라, 목회자와 교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가 2000년 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신 다양한 교수방법들은 현대의 세속교육에서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용하고 있다. 예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가르치는 일”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와 장년부에 이르는 전 교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 IV. 마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수방법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모범적인 교수방법으로서 유효하다. 예수의 여러 가지 사역 중 가르치심은 예수의 복음 사역의 훌륭한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혁신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예수의 교육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교육생들의 지적 수준, 사회경제적 배경, 과거 경험 등에 기초하여 가장 적절한 교수방법을 적용하셨기 때문이다. 예수의 다양한 교수방법은 세속교육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교수방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구성주의 교육관에 비추어 볼 때 2000년 전에 이미 실천에 옮기신,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 행위였다. 교회교육은 예수의 가르침을 보다 정교하게 연구하고 실천하는 행동

을 보여야 한다. 교회교육을 효과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몇 가지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교회교육의 교수 과정은 교사의 이야기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교육의 흐름이 너무 교사 주도적이어서 학생과 교사가 혹은 학생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위한 교수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교회의 교육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교사들은 공과교재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공과교재에 의존한다는 것은 교사의 교수방법 사용의 자율성을 해치고 학생들의 의견이나 논쟁을 제한할 수 있다.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주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업시간에 학생들 간의 협동학습과 교사와 학생간의 토론의 부재이다. 대부분의 교회교실 환경은 이러한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수활동을 매우 제한한다. 협동학습과 토론을 위한 교육환경 특히 교실의 구조는 교사로 하여금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성경과 교리에 대한 개념들은 대부분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이다. 유소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이를 신앙적 관점에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암기하게 한다는 것은 생활속에서 성경 말씀의 이해와 실천 사이를 멀게 한다. 건전한 토론과 협동학습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교회교육은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고정된 세계가 존재한다는 관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현대인들에게 고정된 세계를 일방적 주입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힘들다. 인터넷의 발전은 인간에게 정보획득의 무한한 동력을 제공하고,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 교육이 지향해야 바람직한 교수방법은 학습자들의 경험에 기초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성경 말씀의 이해를 높이는데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 교수방법에 대한 인터넷의 이용이다. 유소년 및 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사

용이다. 인터넷 환경은 이미 유선에서 모바일로 넘어갔고, 어느덧 일상생활에서 유비쿼터스라는 모바일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 교회는 청소년과 청소년, 그리고 인터넷의 초기 세대인 장년층에게 성경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데 있어 인터넷 활용은 매우 유용한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 일선에 서있는 사람들은 교회학교의 교사들이다. Barzun(1992)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교사의 열심과 사명을 다짐해본다.

가르쳐본 사람은 가르침이라는 기술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는 학생들의 마음을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보려는 교사의 비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20).

## 참고문헌

- 강인애(1999), 『 왜 구성주의인가? 』, 서울: 문음사.
- 강인애 외 8인(1999), 『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 서울: 문음사.
- 김중민(1993), “한국교회 청소년 교육의 방법론 연구”, 고신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성호(1996), 『 교육공학원론 』, 서울: 양서원.
- 김용섭(1994), “제자훈련의 성경적 원리와 교수방법”, 고신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윤·백교수(1998), 『 효과적인 성서 교수법 』, 서울: 생명의말씀사.
- 박호준(1986), “예수의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창화(1998), “청소년 교회교육에 있어서의 협동학습의 적용”, 고신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재(2001), “한국교회의 청소년 교육방법론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용철(2000), “교육공학의 간학문성에 대한 조망”, 한국교육공학연구, 16(3), 27-50.

- 옥한흠(1984),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 윤영준(1990),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합리성과 사회비판』, 서울: 교보문고.
- 은준관·임영택(1983), 『교회 교육 교수학습론』, 서울: 종로서적.
- 이만재(1997), 『교회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서울: 규장문화사.
- 이만재(1997), 『교회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서울: 규장문화사.
- 정필훈(1998), “제자훈련의 성경적 원리와 교육방법”, 고신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운식(2000), 『유년주일학교혁명』, 서울: 규장문화사.
- 탁영철 역(1994), 『창조적인 성경학습 활동』, 서울: 파이디온선교회.
- 황경모(2002), “대안교육운동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고신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윤환(1999), 교수-학습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 초등교과교육연구, 제 2호.
- 홍경근(1998), 『교육위원회, 교회교육의 중심기관』, 교회교육.
- Awad, E. M.(1985), *Systems Analysis and Design* (2nd eds.). Iinois:Richard D. Irwin, Inc.
- Barzun, J.(1992), *Begin Here: The Forgotten Conditions of Teaching and Learn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ooks, J. G., and Brooks, M. G.(1999), 『구성주의 교수-학습론』, 추병완, 최순 역, 서울: 백의.
- Brown, J., and Collins., and Duguid, P.(1989), *Situated cognition and Culture of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18, 32-42.
- Kenneth O. G., & Howard G. H.(1990), 『교수법』 유명복, 홍미경 역(1994), 서울: 파이디온선교회.
- Duckworth, E.(1993), *Personal Communication*, Presentation at Institute for Educational Dialogue on Long Island.
- Duffy, T. (1996), *Problem-Based Learning Workshop*. LG Learning Center, July 28-aug. 3. Seoul, Korea. Unpublished manuscript
- Duffy, T and Jonassen, D. Eds (1992)., *Constructivism and the technology of Instruction: A Conversation*.(35-44), New Jeay: Lawrenbaum Associates.
- Forman and Puffal(1988), eds, *Constructivism in the Computer Ag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osnot, C. (1989), *inquiring teachers, inquiring learners : A constructivist*

- approach to teaching*.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 Gardner, H.(1991), *The Unschooled Mind: How Children Think and how Schools should teach*, New York:Basic Books.
- Home, H. H.(1980), 『예수의 교육방법론』 박영호 역(1992),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Kregel Pub. 1980 출판)
- Jonassen, D.(1991), *Thinking Technology: Context is everything*. Educational Technology, 31(6).
- Kuhn, T.S.(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Noddings, N.(1990), *Constructivism in Mathematics Education*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4. Treston, Va:NCTM.
- Perkins,D.(1992), *Technology meets Constructivism* Do they mae a marriage In
- Russell, D.(1993), "Vygotsky, Dewey, and Externalism: Beyond the Student/Discourse Dichotomy." Journal of Advanced Composition, 13(1), 173-197.
- Tobin, K. & Tippins, D.(1993), *Constructivism as a referent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K Tobin(Ed.), The practices of constructivism in science educ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von Glasersfeld,E.(1987), *The Construction of Knowledge:Contributions to conceptual semantics* CA: Intersystems Publications.
- Wheatly, G. (1991), *Constructivist perspective on science and mathematics learning*. Science Education, 75(1).

## ABSTRACT

# The Possibility of Change for Church's Teaching Skills

Gwan-Sik Y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the great teaching skills that Jesus Christ have showed to Korean churches. In view of the constructivism that gives good alternative ideas to many education areas, we need to examine His great teaching skills. His teaching skills have influenced all churches all over the world up to the present. Especially, the teaching of the His various works is to be good means of his gospel as well as the most important means to make church innovation. The best reason that His education was to be lead good results could be used the proper teaching skills based on the intellectual levels, social and economical positions, past experiences of those that Jesus had met. But, Korean churches of today could not study and follow his good teaching skills very carefully. So, all churches should show more practical behaviors about teaching of Jesus Christ.

key word : church education, constructivism, teaching  
skill